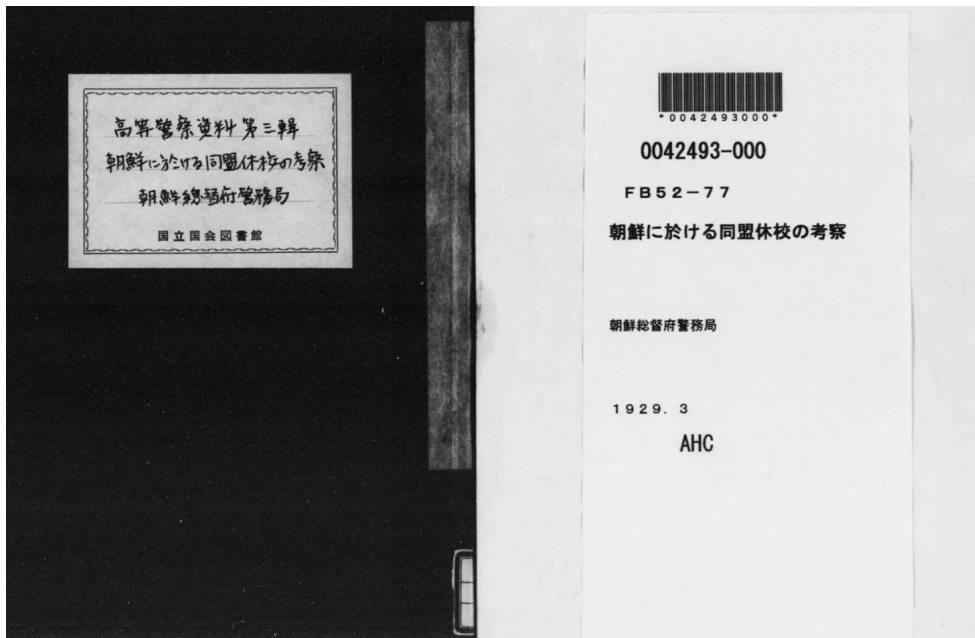


우수상

반쪽의 해방, 손자가 쓰는 추도사



MT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올해로 6·10 만세운동이 100주년을 맞았다. 주류 역사는 종종 이날을 3·1 운동의 연장선이거나 조선 학생들의 자발적 봉기로 단편화한다. 그러나 그 거대한 폭발의 이면에는 일제에 일격을 가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항쟁을 치밀하게 기획했던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 이름 없는 사회주의자들의 설계도가 있었다. 이 글은 그 지워진 설계자 중 한 명으로서 식민지 조선의 해방에 투신했으나 이념의 장막 뒤에 유기된 우리 가문과 같은 독립 투사들에 관한 복원의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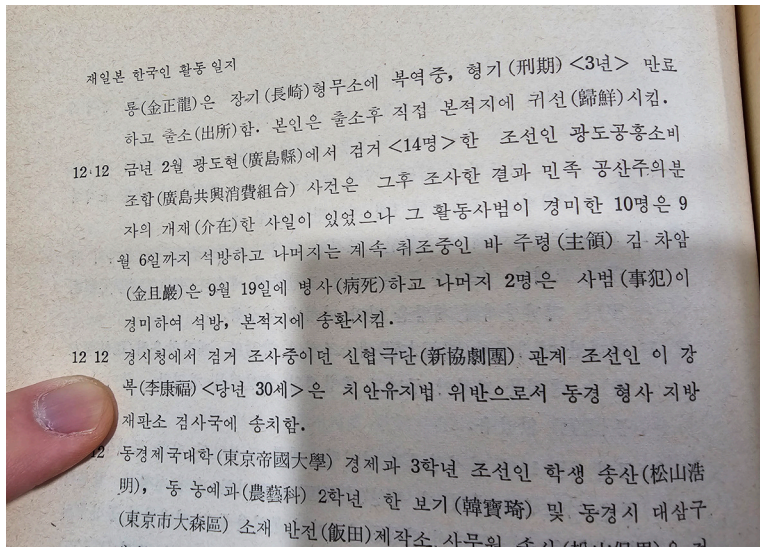
기자는 타인의 삶을 추적하는 데 익숙하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숨겨진 이면을 들춰 기록으로 남긴다. 파편을 모아 진실의 형상을 복원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나는 내 핏줄의 줄기를 타고 올라가 역사의 심연을 마주하는 것에는 둔감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상흔을 ‘가족사’라는 이유로 외면했다.

나의 조부 이강복(李康福). 가문 내에

서 그는 ‘와세다 대학교 출신 지식인’ 혹은 ‘프롤레타리아 연극인’ 정도로 회자됐다. 그 이름 뒤에 붙은 치안유지법에 이른 국가보안법의 낙인은 50년 가까이 우리 집안의 침묵을 강요했다. 대를 이른 연좌제의 그림자다. 그동안 수많은 취재원을 만나며 진실을 들으려 노력했지만 정작 내 가족이 겪은 근현대사의 모순 앞에서는 눈을 감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강요된 침묵의 벽을 허문 것은 최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어두운 아카이브 속에서였다. 나는 1929년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발행한 극비 사료 ‘조선에 있어서의 동맹휴교에 관한 고찰(朝鮮に於ける同盟休校の考察)’을 발굴했다. 국내 학계에 아직 보고되지 않은 기록이다. 일제가 전향하지 않은 사상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불온한 공기’로 규정하고 그들의 숨소리조차 박제하기 위해 남긴 감시의 장부다.

사료 속 조부의 취조 기록은 건조했다.



원호저 발간 독립운동사 자료집 이강복 선생 1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박제된 문장은 더 이상 죽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다. 사상 전향을 압박하는 일제 앞에서 청년 이강복이 남긴 진술은 시대를 뚫고 내 심장을 타격했다. 그것은 이념의 낙인 아래 숨죽여온 가문을 향한 100년 만에 터져 나온 복권의 신호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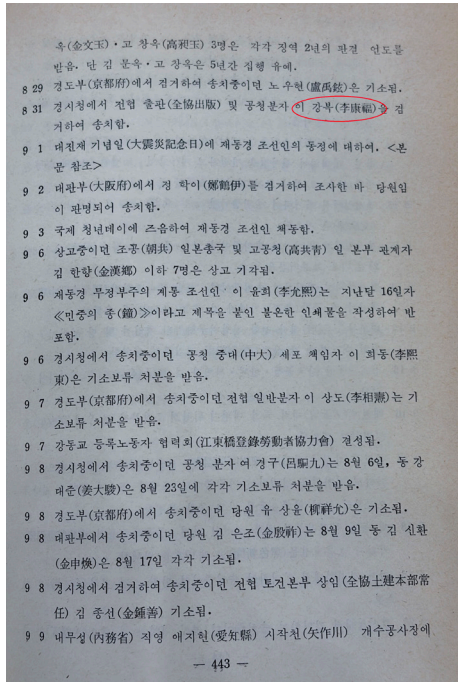
‘自分の父は曾て大正八年制令違反として牢獄に繋がれたことがあつた。その事が常に脳裡に徹して離れない。自分が社會運動に携はる様になつたのはこれが爲である。’

(자신의 아버지는 일찍이 다이쇼 8년(1919년, 3.1 운동)에 제령 위반으로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다. 그 사실이 항상 나의 뇌리에 사무쳐 떠나지 않는다. 내가

사회(주의) 운동에 종사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조부가 뇌리에서 지우지 못했던 아버지, 나의 증조부 나봉(羅峰) 이기양(李起陽) 지사는 의열(義烈)의 실천자였다. 대구의 유력 자산가였던 그는 제국이 허락한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으나 그 안락한 외피를 위장막 삼아 저항의 보급로가 되기를 자처했다. 자본가의 외양 뒤에서 의열단장 약산 김원봉(金元鳳), 이종암(李鍾岩)과 함께 단재 신채호 선생의 격문 ‘조선혁명선언’을 상해에서 국내로 은밀히 실어 나르는 혈관이 되었다. 자신의 가산을 허물고 일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독립투사의 숨구멍이 되어주었던 대가는 가혹했다.

2026 기자의 세상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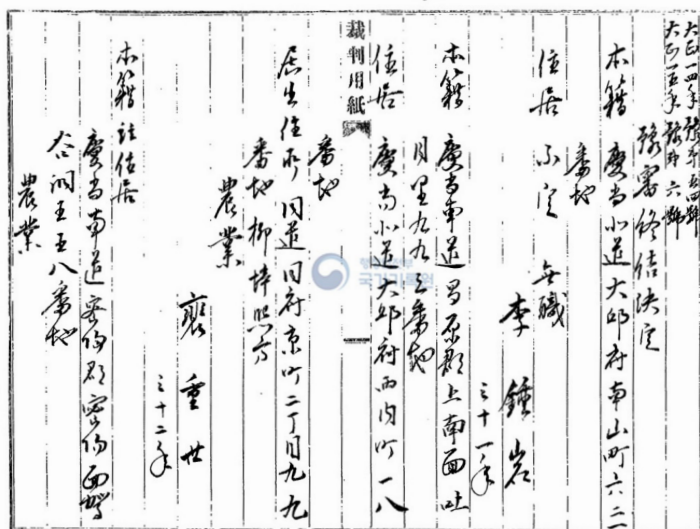
원호처 독립운동사 자료집 이강복 선생 2

1920년 12월 ‘밀양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 이후 일본 군경의 저인망식 추적에 쫓기던 의열단 부단장 이종암이 최후의 은신처로 택한 곳은 다름 아닌 증조부의 산장이었다. 당시 거물이 머문 자리는 곧 사선(死線)이었고 그를 품은 대가로 이기양 지사는 일제 판결문에 ‘폭발물취체 벌칙위반’이라는 죄명으로 박제됐다. 그들은 증조부를 파괴자로 명명했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일제를 겨누는 가장 위험하고도 묵직한 설계자였음을 증명하는 훈장이었다. 아버지가 화약을 품어 제국의 물리적 토대를 흔들었다면 그 뒷모습을 보며 자란 이강복 선생은 훗날 도쿄의

무대 위에서 지성과 언어로 일제의 심장부를 타격하는 또 다른 방식의 설계를 시작하게 된다.

이강복 선생은 1920년대 후반부터 해방 정국에 이르기까지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을 가로지르며 프롤레타리아 예술을 민족해방운동의 가장 예리한 무기로 베풀었다. 사상적 기획이 발아한 공간은 와세다 대학이었다. 당대 와세다는 일본이 식민지의 수재를 회유해 체제의 부속품으로 길러내려던 엘리트 양성소였으나 역설적으로 급진적 사상과 아방가르드 예술이 가장 먼저 밀려드는 불온한 해방구이기도 했다. 그는 ‘프루트’(일본프롤레타리아연극동맹)의 핵심으로 활약하면서 일본 내 조선인 노동자와 유학생을 하나의 사상으로 녹이는 거대한 용광로 역할을 했다.

이강복 선생은 일본 내 유일한 진보적 저항 지식인의 요람이었던 쓰키지(築地) 소극장의 단원으로 활동하며 무라야마 도모요시(村山知義) 등 일본 아방가르드의 거두와 교류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예술적 취향의 결합이 아닌 프롤레타리아 연극의 보편적 방법론을 조선 독립이라는 구체적 실천과 결합했다. 무대를 피억압 민중의 각성을 선동하는 해방의 실험실로 변모시켰다. 그들에게 연극은 제국의 문화적 인프라를 역이용해 식민지의



이기양 지사 일제 폭발을 관련
판결문

현실을 폭로하는 트로이 목마였다.

이는 조선 독립이라는 드라마를 도쿄에서 가장 치열하게 상영해 낸 투쟁이었다. 지식인의 관념적 저항을 넘어 제국의 밑바닥을 지탱하던 양국(조선과 일제) 프롤레타리아트의 땀과 피를 정면으로 마주한 것이다. 와세다 출신 조선인이 주도하는 이 전위적이고 치밀한 조직은 필연적으로 일제 공권력과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치안유지법 위반’을 고리로 그를 도쿄 형사지방법원 검사국에 체포·송치를 반복했고 1945년 8월15일 해방과 함께 20년간의 도쿄 투쟁을 접고 귀국한다.

해방을 맞이한 이강복 선생은 와세다 시절부터 도쿄의 무대에서 축적해 온 대

중 조직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방기 문화 운동의 전면에 등장한다. 대중과의 공감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그의 노선은 해방 공간의 혼란 속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1946년 좌우익 전체 연극인의 80%가 참여한 통일 전선적 성격을 띠었던 ‘조선연극동맹’의 마지막 서기장으로 선출된다. 제국의 무대에서 우리말을 지탱한 와세다의 청년은 그렇게 새 국가 건설의 문화적 토대를 다지는 드라마리그의 중심에서 있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의 좌익 검거령, 이승만 정권의 국가보안법 탄압이 이어지며 수많은 연극 동지가 월북을 택했다. 그러나 이강복 선생은 고향인 대구에 남았다. 이념의 광풍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남한

은 간첩이라는 잔혹한 낙인을 찍었다.

중앙정보부는 1968년 이강복 선생을 최대의 공안 조작 사건인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에 연루시켰다. 당시는 박정희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해 통일혁명당 등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잇따라 발표한 시절이었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견뎌냈던 독립 투사는 해방된 조국의 고문실에서 만신창이가 되었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투옥된 그는 혹독한 고문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1971년 10월 대전교도소에서 눈을 감았다.

비극의 역사는 2014년에야 비로소 법적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2014년 5월 재심을 통해 이강복 선생에게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수사 단계의 자백이 조작되었다”고 판시했다. 국가가 조작한 간첩의 명예를 거의 반세기 만에 완전히 벗겨준 사법부의 뼈아픈 참회였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법적인 명예는 회복됐지만 독립운동가로서의 복권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다. 그간 우리 정부의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은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유독 신중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과거 보수 정부 시절 이념적 편향성을 경계한다는 명목 아래 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와 공적 인정은 우선 순위에서 밀린 분위기다. 단순히 사회주의를 공부했다는 이유로, 혹은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사상적 모호함’을 근거로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안다.

이 글은 한 가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서가 아니다. 이념의 칸막이에 갇혀 여전히 조국의 부름을 받지 못한 수많은 ‘반쪽의 독립운동가’를 온전히 복원하려는 시대적 제언이다.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를 제대로 발굴하지 않는 것은 독립운동의 절반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약산 김원봉의 무장 투쟁과 단재 신채호 선생의 민족주의 사상이 하나로 녹아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보훈도 그들의 진심을 온전히 보듬어야 한다. 🍷

*참고사료

- 이기양, 이종암 등 9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1926년
- 조선에 있어서의 동맹휴교에 관한 고찰(朝鮮に於ける同盟休校の考察)/조선총독부 경무국 제3집, 1929년
- 일본 프롤레타리아 연극론/무라야마 도모요시(村山知義), 1930년
- 독립운동사 자료집 별집3, 재일본 한국인 민독운동사 자료집/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원호채(국가보훈부 전신), 1978년
- 한국 프롤레타리아 연극 운동의 변천과정/안광희, 2011년
- 연극인 이강복(李康福) 연구 : 민족적 연극을 위한 페이소스(Pathos)/전명혁, 2013년
- ‘남조선해방전략당 간첩사건’ 사형...대법, 45년 만에 무죄/머니투데이, 뉴스1, 뉴시스 등 2014년 5월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